

試鍊을 克服하여 富強을 얻자

國力培養을 加速化

朴正熙 대통령은 10월 4일 7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施政 演說文을 發表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來年에도 「여전한 시련과 도전」이 예상되지만 國力培養을 加速化시켜 하루빨리 富強한 國家가 되도록 努力하자고 강조했으며, 富強한 國家란 經濟的으로 自立하고 스스로 지킬 力量을 가진 國家라고 정의, 이와 같은 與件을 구비하기 위해 내년에도 國民總和, 政治的, 社會的 安定 위에 효율적인 國政운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연설문에서 과학기술 관계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科學技術 振興과 技能人力 개발

政府는 새해 과학기술 시책의 목표를 기술자립과 혁신에 두고 선진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고 기술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며 국가적 장기 대형 연구와 두뇌 집약 산업의 중점개발로 중화학 공업을 뒷받침하고 기술 용역 능력을 국제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努力할 것 이라다.

高級科學頭腦 養成

고급 과학 두뇌의 대량 양성과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韓國科學院을 계속 育成하고 科學財團을 통해 大學의 基礎研究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技能人力 확보 努力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크게 늘어나고 있는 技術 및 技能人力 확보를 위해 實業系大學 및 專門大學과 工高 시설을 대폭 확충, 직업훈

련소 장비보강, 除隊軍人을 技能 人力化 할 수 있도록 軍 技能工 養成을 확대한다.

産學協同과 工大 特性化

공과대학의 특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할 것이며 실험 실습시설을 확충 과학기술 교육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高度精密 兵器 研究開發

방위산업 육성에 있어서 航空機 등 高度 精密 兵器의 研究開發을 本格化 이의 生産體制를 構築해 나갈 것이다.

營農機械化和 영농후계자 양성

공업화 과정에서 토지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간척사업, 山地開發과 農業機械化를 촉진하고 영농후계자의 양성을 위해 農高教育의 強化와 農村靑少年의 營農定着을 支援한다.

重化學工業 構造의 高度化

鐵鋼部門 : 급격히 증가하는 철강재 수요 충족을 위해 浦鐵에 4期확장 공사를 착수

機械工業 : 기계공장 건설을 촉진하고 分野別 專門化시켜 品質면에서 國際水準化를 이룬다.

造船工業 : 국제 조선업체 불황 여파를 극복할 수 있도록 安定操業의 維持를 위해 輸出船舶 受注 활동을 지원, 計劃造船을 추진하고 先進設計 建設技術을 적극 도입한다.

動力 資源의 안정 확보

정유공 장선설과 증설을 하며 석유자원 개발 및 韓·日 大陸棚 共同開發 시추 탐사를 진행하고 火力 및 原子力 發電所를 10個所 新設 착수하여 전력수요에 대비한다.